

2021

국내외 규제 및 시장동향 분석보고서

Vol. 04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KOTITI시험연구원 소비재인증사업본부에서 발간하는 국내외 규제 및 시장동향 분석보고서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법규 변경사항 및 이슈사항 모니터링을 통하여 섬유 및 소비재 관련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CONTENTS

01 | 월간 주요 이슈 4

02 | 국내 규제 법령 및 이슈 6

03 | 국내 KC 관련 법령 및 이슈 12

04 | 해외 규제 법령 및 이슈 16

05 | 부록 24

01

월간 주요 이슈

- 소비자원, 합성 가죽 소파서 환경호르몬·납·카드뮴 검출 (아시아경제)

월간 주요 이슈

아시아경제 (2021. 04. 01.)

소비자원, 합성 가죽 소파서 환경호르몬·납·카드뮴검출

기사입력 2021.04.01 14:26 최종수정 2021.04.01 14:26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검출 현황]

시험부위	유해물질명	준용기준 및 허용치		EU REACH 기준초과 제품		비고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	
바닥방석 부위 합성가죽 마감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국내)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품 등 (해외)EU REACH	0.1 이하	5.748 ~ 32.528	16개	-프탈레이트 단독 : 12개 -프탈레이트+납 중복 : 3개 -프탈레이트+카드뮴 중복 : 1개
	납 (mg/kg)	(국내)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품 등	300 이하	838.8 ~ 2,132.2	3개	
		(해외)EU REACH	500 이하			
	카드뮴 (mg/kg)	(국내)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품 등	75 이하	128.2	1개	
		(해외)EU REACH	100 이하			

* EU REACH :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검출 현황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일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소파 1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6개에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 비율은 0.1% 이하여야 하지만, 이들 제품의 함량 비율은 5.7~32.5%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가운데 3개는 납이 1kg당 839~2132mg가량 나와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초과했다. 1개는 카드뮴을 1kg당 128.2mg 함유해 역시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납은 인체발암 가능 물질, 카드뮴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은 있지만 합성 가죽 소파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 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합성 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16개 제품의 사업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모든 합성 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합성 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품명과 외형 치수, 마감재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19개 제품 모두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다. 모든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02

국내 규제 법령 및 이슈

-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섬유 · 제지업계, '2050 탄소중립' 첫걸음
-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경찰 단체복으로 보급
- 경기도, 도내 섬유·패션기업 '글로벌 플랫폼'에 태워 수출 판로 뚫는다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 04. 07.)



시험인증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는 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두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8일부터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
-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하는데, 이중 900여 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 그러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그 외, 3,000여 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적합성평가관리법」 주요 내용

①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 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 인정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다만, 해당 기관이 지적 받은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둘째,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로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해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셋째,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대체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선의의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③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넷째,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p>법제처</p> <p>국가시험관리위원회</p> <p>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4. 7.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p> <p>제1장 총칙</p> <p>제5(목적) 이 법은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 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시험인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운영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것임과 아울러 시험인증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p> <p>1. "시험인증기관"이란 국가기술표준법, 제3차 과학기술기본법, 제3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3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법령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2.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3. "공인기관"이란 국가기술표준법, 제3차 과학기술기본법, 제3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4.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5.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6.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7.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8.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9.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10.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본 시험인증관리법(이하 "이 법"이라 함)은 시험인증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필요에 따라 제1차부터 제10차까지 개정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시험인증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험인증 관련 업무의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것임과 아울러 시험인증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p> <p>1. "시험인증기관"이란 국가기술표준법, 제3차 과학기술기본법, 제3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3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법령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2.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3. "공인기관"이란 국가기술표준법, 제3차 과학기술기본법, 제3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4.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5.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6.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7.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8.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9.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10. "시험인증기관"이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	---

섬유·제지업계, '2050 탄소중립' 첫걸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 03. 25.)



섬유·제지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소통창구인 「섬유·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를 발족하고, “섬유·제지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우리 정부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

* 온실가스 배출량('18년, 비중) : 섬유 6.1백만톤 (1.5%), 제지 5.5백만톤(1.4%)

- 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애로·건의사항 등 적극적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

❖ 회의 내용

- (섬유산업연합회) 섬유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화학섬유분야에서 폐열 회수·재활용을 통해 에너지사용을 절감하고, 염색·가공분야에서 디지털염색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섬유산업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18년 섬유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6.1백만톤(국가 전체배출량의 0.9%, 산업부문의 1.5%)

- (탄소산업진흥원) 에너지 절감형 제조공정 개발 및 재생 탄소섬유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산업부 산업정책실) “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 ①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② 업종별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③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제정, ④ 대규모 R&D사업 추진, ⑤ 세제·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

- 또한, “섬유·제지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제조공정 개선 및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제품 연구개발 등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경찰 단체복으로 보급

환경부 보도자료 (2021. 03. 15.)



환경부는 3월 15일, 국방부와 경찰청, 섬유산업연합회와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순환 서약식을 개최했다.

-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전 단계 개선 및 정책 지원, 섬유산업연합회는 회원사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 추진, 국방부는 1만 벌, 경찰청은 2천 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 구매를 약속했다.
-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 벌, 간이근무복 6백 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설명회에서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만든 가로수보호판, 생기와 등 혁신제품 후보 재활용제품을 비롯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혁신제품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하고,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경찰청 구매의류 시제품]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종(2.16~3.29)
-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서약식은 중앙부처와 기업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라며, “국방부, 경찰청 외에도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시회에서는 배출부터 제품화까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페트병, 재생원료, 원사 등이 전시되었다.

경기도, 도내 섬유·패션기업 ‘글로벌 플랫폼’에 태워 수출 판로 뚫는다

경기지사투데이 (2021. 04. 12.)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섬유·패션기업의 온라인마케팅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2021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목적) 해외 유명 온라인 유통 채널인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플랫폼 별 성격에 맞는 품목을 설정해 입점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도움
- (지원 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섬유·패션 중소기업
- ‘알리바바’ 입점 지원은 도내 섬유 및 원단 기업 10개사 / ‘아마존’ 입점 지원은 도내 의류 완제품 및 기타 패션잡화분야기업 20개사
- (지원 내용)
 - 마케팅비, 물류비 등을 최대 3백만원까지
 - 플랫폼 입점교육 및 마케팅 컨설팅 입점 및 물품 등록 애로해결 매출 실적관리 판매페이지 제작 지원 등
- (지원 방법) 2021. 4. 23.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 URL : <https://www.egbiz.or.kr/>

- 경로 : [지원사업] - [분야별지원사업] - [수출]

지원사업명	아마존(AMAZON) 플랫폼 참가지원 도내 섬유·패션 참가기업 모집 일수중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4-09 00:00 - 2021-04-2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인력	관련사이트	http://me2.do/xM2cKhMH
검색키워드	아마존 / 플랫폼 / 입점 / 지원 / 교육 / 마케팅		
첨부파일	파일 1. 아마존(AMAZON)입점 참가지원 모집공고문.pdf [174 KB] 파일 2. 아마존 참가기업 신청평가표.pdf [96 KB]		
사업담당	특화산업팀 고기열(031-850-3633), 특화산업팀 김현진(031-850-3636)		

아마존(AMAZON) 플랫폼 참가지원
도내 섬유·패션 참가기업 모집 안내

지원사업명	알리바바(ALIBABA) 플랫폼 참가지원 도내 섬유·패션 참가기업 모집 일수중		
진행구분	2021년도 2차	접수기간	2021-04-09 00:00 - 2021-04-2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인력	관련사이트	http://me2.do/xv0hDM8y
검색키워드	알리바바 / 플랫폼 / 입점 / 지원 / 교육 / 마케팅		
첨부파일	파일 1. 알리바바(ALIBABA)입점 참가지원 모집공고문.pdf [175 KB] 파일 2. 알리바바 참가기업 신청평가표.pdf [48 KB]		
사업담당	특화산업팀 고기열(031-850-3633), 특화산업팀 김현진(031-850-3636)		

알리바바(ALIBABA) 플랫폼 참가지원
도내 섬유·패션 참가기업 모집 안내

03

국내 KC 관련 법령 및 이슈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바닥매트, 자전거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공고 (2021. 04. 05.)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①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4조)

② 인증 및 확인증 번호부여 체계 정비(별표 2)

- 해외 제조공장 증가 등으로 인해 공장 일련번호에 4자리 이상의 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기존) 일련번호 3자리 숫자 → (개정) 일련번호 숫자

현행	개정안
제4조(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① ----- ② -----	제4조(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① -----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 비대면으로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우편, 전자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 또한, 안전인증기관은 비대면 공장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조자로부터 심사일자 기준으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제공받아, 그 제품을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2)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식별방법 가.라 생략 마. ㉞란에는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를 3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별표2)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식별방법 가.라 현행과 같음 마. ㉞란에는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 일련번호를 숫자로 기재한다.

바닥매트, 자전거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 04. 0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 안전성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 2. ~ 3.(2개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자전거, 바닥매트, 완구, 실내의류, 침구류, 키보드 등 376개 제품
 - (전기) 마사지기, 오븐, 에어프라이어, 공기청정기, 발욕조, 등기구 등 229개 제품
 - (생활) 마스크, 헬스기구, 카페트, 전기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압력솥 등 119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 아울러,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하였으며,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어린이제품 : 바닥매트, 자전거 등 21개, 전기·생활용품 : 오븐, 압력솥 등 9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용 바닥매트, 자전거, 승용완구 등 21개

구분	내용
바닥매트 (3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²·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한 바닥매트 3개
자전거, 승용완구 (8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하여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 등
섬유제품 (5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

- 국가기술표준원 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또한,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04

해외 규제 법령 및 이슈

- [일본] 흡습발열성 시험 JIS L 1952 제정
- [멕시코] 분해 가능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사용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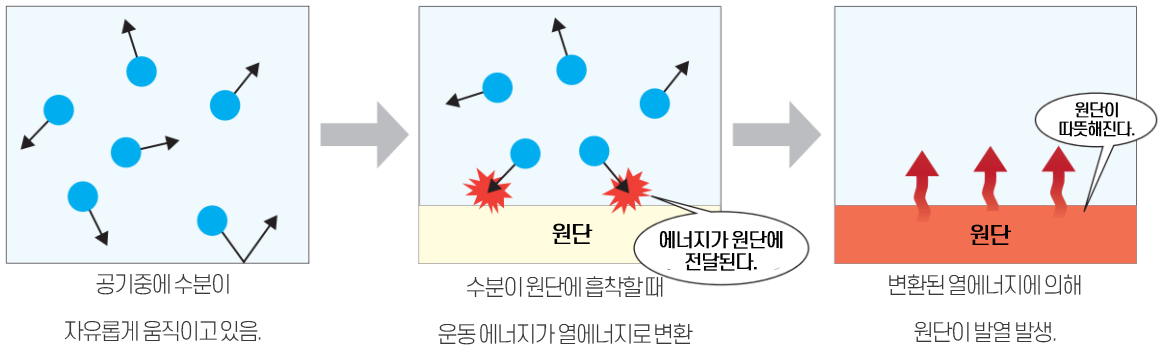
[일본] 흡습발열성 시험 JIS L 1952 제정



흡습발열성 소재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서, JIS L 1952 원단의 흡습발열성 시험방법이 제정되었다. (2021. 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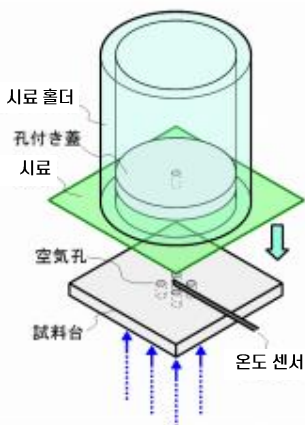
❖ 흡습발열성이란?

- 사람의 피부로부터 방출되는 미량의 수분이 원단의 섬유 표면에 흡착될 때 발열하여(흡착열)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이 현상을 흡습발열성이라고 한다.



❖ 시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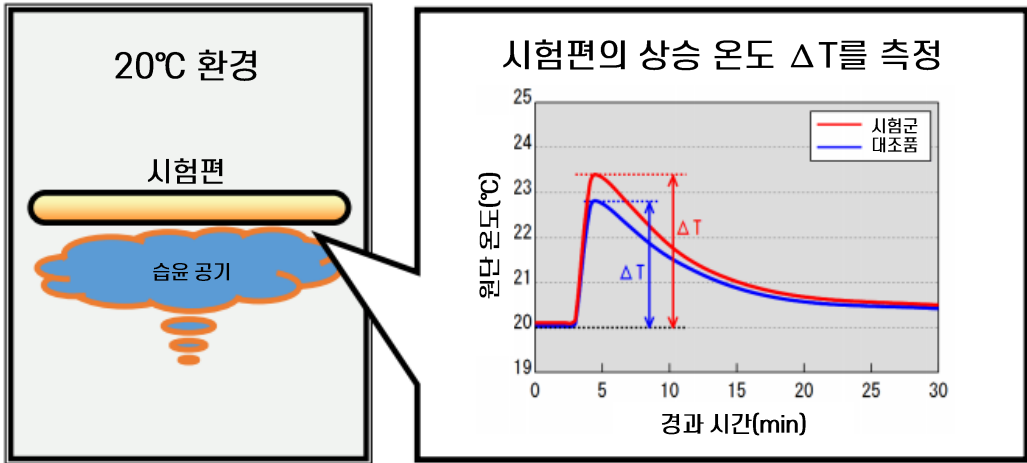
- 시험편 크기 : 60mm X 60mm
- 피부가 닿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20°C, 40%RH 저습도에서 20°C, 90%RH 고습도 공기를 공급했을 때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 시험결과산출 방법

1. JIS L 1952-1 : 최대 흡습발열 온도 측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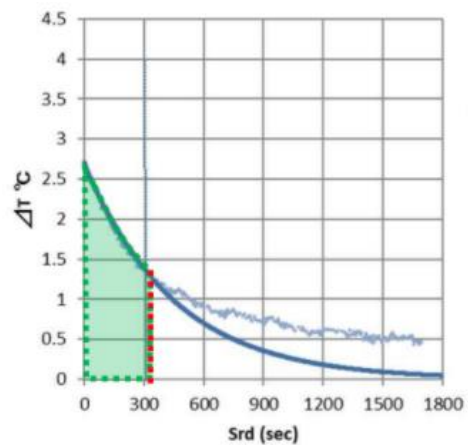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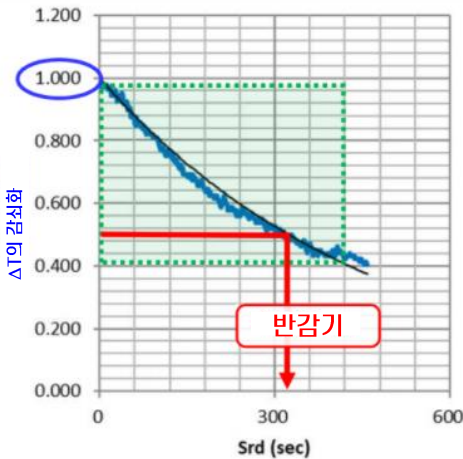
- 흡습발열에 의한 원단의 상승 온도를 확인하는 시험
- 저습도(20°C×약 40% RH)에서 고습도(20°C×약 90% RH)로 급격히 변화시켜 가슴면의 최대 흡습발열 온도 ΔT_{max} 를 구한다.



$$\text{최대 흡습발열 온도 } \Delta T_{max} = T_{peak}(\text{최대온도}) - T_{initial}(\text{초기온도})$$

2. JIS L 1952-2 : 열유지지수 측정법

- 흡습 후의 발열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평가
- 최대 흡습 온도 ΔT_{max} 에서 반감기까지의 시간과 지수 회귀 곡선에서 열유지지수를 구한다.



▪ 반감기

최대흡습발열온도가 절반으로 낮아질 때까지의 시간(감쇠비가 0.5가 되는 시간)

▪ 열유지지수

T_{max} 도달 후의 온도감쇠곡선의 회귀곡선과 T_{max} 에서 반감기까지의 시간의 면적

[멕시코] 분해 가능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사용 늘어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0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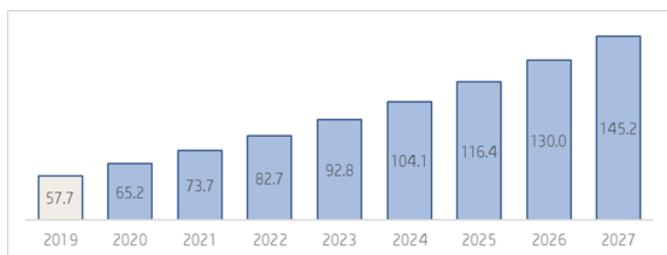
멕시코시티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따라,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및 완제품 관련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1회용 비닐봉지 및 빨대를 대체할 신규 소재 및 제품을 발굴하고 있다.

❖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현황

- 2019년 기준 멕시코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시장은 57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멕시코 내수시장에서만 약 5000톤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해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2020년에는 약 1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까지는 2019년 대비 152%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생 가능한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을 의미하며 멕시코 시장 내 54%가 재생 가능한(Bi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된다. 그러나 약 46%는 분해되지 않는(Non Biodegradable)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된다.
- 주요 성분으로 약 16%가 녹말 합성 소재, 15%가 PET, 11%가 폴리에틸렌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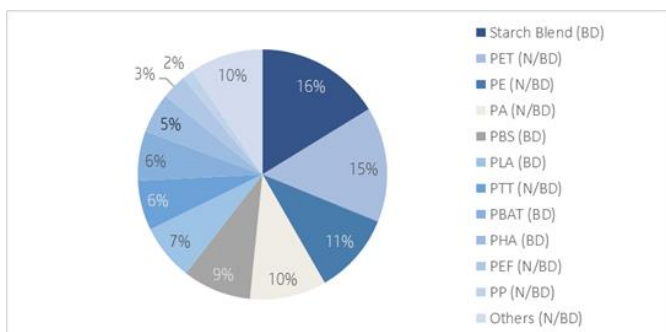
[멕시코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시장(2019-2027)]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 해당 시장의 성장은 생태계 보존 및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주정부의 규제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바이오 플라스틱 주요 성분(2019)
(단위: %)



주: (N/BD)재생 불가능한 제품, (BD)재생 가능 제품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협회(ANIPAC)에 따르면 약 65%의 바이오 플라스틱이 음식 및 제품 포장에 사용된다고 한다.
-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활용의 정도에 따라 향후 의약품, 농업, 장난감 제조,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 비중이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바이오 플라스틱의 높은 생산 단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면 높은 활용도를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은 별도로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나 Norma Mexicana(NMX)라는 인증을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 해당 인증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일종의 보증 개념의 인증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인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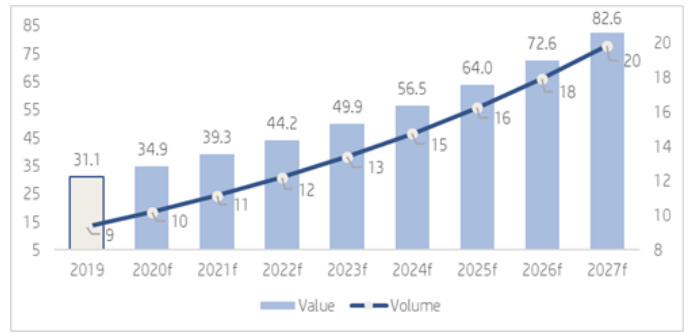
인증번호	내용
NMX-E-267-CNCP-2016	제품의 재질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제품의 난연성 등을 정밀하게 검사, 자국내 제조 및 유통 관련 제품이 적합함을 보증한다.

자료: 멕시코 연방관보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 멕시코 재생가능 플라스틱 시장 분석

- 2019년 기준 재생가능 플라스틱 시장은 31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Allied Market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시장 규모는 82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약 166%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멕시코 재생가능 플라스틱 시장 규모(2019-2027f)]
(단위: 백만 달러, kilotons)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 재생가능 플라스틱의 주요 소재는 녹말 혼합 분자 약 36%,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PBS) 20%, 폴리 젯산(PLA) 16%로 집계됐다.
- 첫 번째, 녹말 혼합 분자는 다른 소재와의 혼합 용이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독성이 낮아 제품 및 식품 포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두 번째, PBS의 경우 식품과 화장품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며 폴리프로필렌과 비슷한 소재로 구분된다.
- PLA는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에 비해 견고한 편으로 기계류 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습기가 없는 건조 제품(건조 과일 및 스낵류, 말린 소시지 등) 및 사료 포장에 사용된다.

[멕시코 재생가능 플라스틱 소재별 시장현황(2019)]
(단위: 백만 달러, %, Kilot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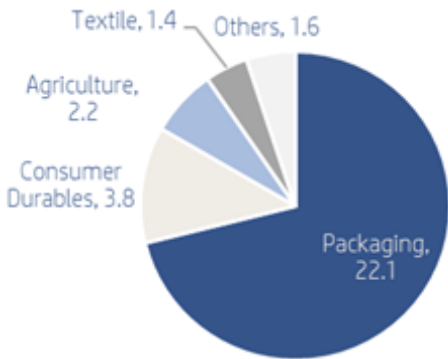
재료	시장 규모	비중	KILOTON 기준	비중
Starch Blend	11.13	36	3.44	37
PBS	6.09	20	1.41	15
PLA	4.97	16	2.3	25
PBAT	4.38	14	1.16	12
PHA	3.58	12	0.67	7
Others	0.91	3	0.35	4
Total	31.06	100	9.34	100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 적용범위

- 재생가능 플라스틱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포장 분야로 약 71.2%를 차지했으며 그 외 지속가능 소비재, 농업, 의류가 다음 순서를 이었다.
- 특히, 포장 분야의 경우 2027년까지 1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로 예상된다.

[산업별 재생 가능 플라스틱 사용 분야 (2019)]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 멕시코 플라스틱 사용 규제(기회요인)

- 멕시코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제한하고 있진 않으나 총 32개주에서 19개주에서 개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정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멕시코시티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고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접시, 빨대, 플라스틱 뚜껑, 컵, 풍선, 플라스틱이 포함된 일회용 커피 캡슐, 일회용 플라스틱 탐폰 애플리케이션 등 의 품목에 해당사항이 있다.

- 이러한 사용 규제는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제품 수요 증가와 직결되는 것으로 재생 가능 플라스틱 제품 소재 수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지역

- Baja California(바하칼리포니아)
- Baja California Sur(바하칼리포니아 수르)
- Ciudad de Mexico(멕시코시티)
- Coahuila(코아우일라)
- Chihuahua(치와와)
- Sonora(소노라)
- Durango(두랑고)
- Tamaulipas(타마울리파스)
- Veracruz(베라크루스)
- San Luis Potosí(산루이스포토시)
- Guerrero(게레로)

1회용 플라스틱(특정 제품, 비닐봉지 및 빨대) 사용 금지 지역

- Jalisco(할리스코)
- Nayarit(나야리트)
- Nuevo León(누에보레온)
- Quintana Roo(킨타나 루)
- Oaxaca(오아하카)
- Puebla(푸에블라)
- Tabasco(타바스코)
- Hidalgo(이달고)

자료: Greenpeace México

❖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트렌드

-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 탐색
 - 재생가능 플라스틱 제품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약 20% 정도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료 다각화 및 비용 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각 기업별 해당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고 있다.

▪ **배달용 포장재 수요 급격하게 증가**

-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멕시코 내 음식 포장 및 배달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멕시코시티, 케레타로,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의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포장재 품목 중 컵,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접시류 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 우버잇츠는 지속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레스토랑을 적극 프로모션 해준다.

▪ **재생가능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신규 재료 발굴**

- 식재료의 버려지는 부분을 수거 및 처리해 생산된 제품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식품 생산자 및 식당과 협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후 재생가능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예를 들어, 멕시코는 세계 1위의 아보카도 생산국으로 매월 약 3만 톤의 아보카도 씨앗이 버려진다. 이에 Biofase라는 현지 기업에서 아보카도 씨앗에서 중합체를 추출해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다른 경우로 멕시코의 전형적인 선인장 노팔(Nopal)에서 섬유질 성분을 추출해 투명 필름을 생산한다.

▪ **종이 빨대에서 다른 친환경 소재를 찾아**

- 멕시코 내 다수 주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재료로 종이 빨대가 부각됐다.

- 멕시코의 종이 빨대 생산 재료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종이 빨대 사용 시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종이 빨대를 대체할 재료를 지속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아보카도 씨앗에서 추출한 빨대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옥수수 와 선인장 섬유질에서 추출한 재료로 생산된 빨대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식품류 포장재 수요 증가**

- 멕시코는 주요 농식품 자재를 수출하고 있으나 제품의 신선도 유지에 활용하기 좋은 포장재를 모색하고 있다.
- 이에 제품의 신선도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바이오폴리머 포장재 부각되고 있다. 바이오폴리머 포장재의 경우 제품 포장에 활용 후 버려질 경우 쉽게 분해돼 퇴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 **자동차산업의 미래 수요**

- 실제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요 품목은 포장재, 비닐봉지, 빨대 등이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도 바이오 플라스틱 재료 개발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 자동차산업의 경우 일반 사출 플라스틱을 대체할 재료를 발굴해 최종적으로는 차량 무게를 줄이고 차량 연료 사용 효율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직 소기의 성과는 없으나 관련 소재 발굴에 자동차산업도 투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1회용 플라스틱 시장의 몰락

- 멕시코의 플라스틱 제조 업체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제조사가 전체 제조사의 약 47%를 차지하며, 매년 700만 톤을 생산한다.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협회에 따르면 주 정부의 규제로 인해 2019년 기준 4.5%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약 8%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멕시코시티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약 50개 이상의 1회용 플라스틱 제조사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을 닫는 1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재생가능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대체할 예정이다.
- 이러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한 신규 수요와 맞물려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업체는 업계의 탄력을 받고 있다.
- BioSolution이라는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사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캠페인 등에 힘입어 약 35%의 매출 성장세를 이루었다. 해당 기업은 종이류 제품을 생산하는 Maped와 협력해 성장에 탄력을 주고 있다.

❖ 한국 기업의 기회요인

- 플라스틱 사용 규제로 멕시코의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약 300만 톤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당 수요는 실제 멕시코 내 생산량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할 것이며 한국 기업 진출의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실제로 멕시코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정부 규제는 상당한 탄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며 1회용 플라스틱 제조 업체의 당해년도 매출이 20% 줄어드는 상황을 연출했다.
- 그러나, 멕시코 내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여력이 부족해 1회용 빨대사용금지 캠페인 진행 시에도 미국 혹은 유럽의 재생 가능 플라스틱을 수입하는 헤프닝이 벌어졌었다.
- 예를 들어, 재생 가능 비닐 봉지의 경우 현지 상황으로는 1킬로당 약 100페소까지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나 1회용 비닐 봉지는 1킬로당 약 30페소에 생산이 가능하다.
- 생산 여력 및 기술이 아직 부족한 상황 대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수입해 가격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05

부록

- 국가별·품목별 기술규제 검색 서비스 "해외기술규제맵" 안내

국가별·품목별 기술규제 검색 서비스 "해외기술규제맵" 안내

국가기술표준원 공지사항 (2021. 04. 07.)

 국가기술표준원 KnowTBT 포털에서 국가별, 제품별 강제 인증제도와 기술기준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 서비스

- ① 국가별, 품목별 강제 인증제도 정보 검색
 - 인증명칭, 현지 시험·인증기관, 인증 획득 절차 등 인증제도 상세정보 제공
- ② 기술기준 정보 검색
 - 제품의 성능·기능의 요구사항, 제품 시험 방법 등 인증에 요구되는 기술기준 상세 정보 제공
- ③ WTO TBT 통보문 제·개정 현황 조회
 - 인증제도 또는 기술기준 등의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을 확인(WTO TBT 통보문이 있는 경우)
- ④ 참여마당
 - 필요한 기술규제 정보 요청, 검색된 정보의 오류 수정,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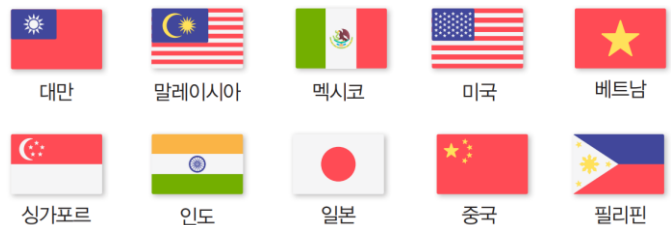
❖ 서비스 제공 범위

- 전기안전, 전자파, 유해물질 제한, 에너지 효율, 통신분야 등 59개 강제 인증제도 및 260개 기술기준

❖ 서비스 제공 품목



❖ 서비스 제공 국가



❖ 접속 방법

- <https://www.knowtbt.kr/> 접속하여 [해외기술규제맵] 아이콘 클릭

관련연락처 Contacts

부서	담당자	업무	전화 / 이메일
글로벌사업팀	박도의 수석연구원	미주, 유럽 규제 및 시험 상담	7181 / de_park
글로벌사업팀	강윤석 선임연구원	일본 규제 및 시험 상담	7433 / ys_kang
섬유생활제품팀	권진경 선임연구원	국내 규제 및 시험 상담	7443 / jk_kwon
섬유생활제품팀	도영은 연구원	보고서 작성 및 편집	7076 / yedo
친환경융합팀	정유영 선임연구원	CPSIA 완구 및 어린이제품	7192 / yyjung
제품인증팀	유형진 책임연구원	KC 법령 및 규제 상담	7057 / hjyoo

- ◆ 전화 : 02-3451-
- ◆ 이메일 : @kr.kotiti-global.com

KOTITI시험연구원은 1961년 설립된 최초의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서 소비재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품질검사,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6개국, 12개 지역에 해외 법인과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중 4개 지역에는 시험실을 운영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근접 지원과 반세기 동안 축적한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 의

1.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KOTITI시험연구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KOTITI시험연구원의 동의 없이 재생산, 배포,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본 보고서는 상업적 또는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KOT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www.kotiti-global.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2201kim>